

간질환의 한의학적 치료방법

대전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간계내과

만성 간염, 간경변 등의 만성 간질환의 원인 인자로는 약물, 간염 바이러스, 알코올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중 바이러스성 간염은 낮은 치료율과 높은 이환율로 인해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성인 남자의 83.0%, 여자의 44.6%가 술을 마시며 사회가 음주를 관대하게 보는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야기되는 알코올성 간질환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이다 발표에 의하면, 1999년도 우리나라가 소비한 알코올이 34만 600kl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전 국민이 1인당 7.3를 섭취한 셈이며, 주종별로 보면 1인당 소주는 58.9병, 맥주는 61.4병, 위스키는 1.28병을 섭취한 것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만성 간질환의 치료에는 금주, 바이러스 감염의 예방, 바이러스 감염시 만성화의 방지, 만성 간염의 경우 간경변증 혹은 간세포암으로의 진행을 지체시키기 위한 치료, 기타 합병증들에 대한 치료 등을 포함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서양의학적인 치료법에는 항바이러스제, 면역조절제, 그리고 간기능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치료 등이 있으나 감염자체의 진행을 막는 만족스런 치료방법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성 간질환의 간세포 손상에 대한 최근의 서양의학적인 관점은 인체 면역응답의 결과로 보고 있으며, 치료에 있어서도 항바이러스제와 아울러 면역조절제가 주가 된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우리 인류보다도 훨씬 앞서서 지구에 출현하였고 현실적으로 그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완전히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그 치료해법을 찾아내는 것 역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많은 환자분에게 있어서 바이러스성 간염은 절대 치료될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비관

적이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이러한 바이러스의 청소를 담당하는 대단히 세련된 면역계(specific immunity)를 가지고 있으며 치료는 이러한 면역기능을 어떻게 증강시키고 조절시키느냐에 따라 그 향배가 결정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치료개념은 기본적으로 한의학적 치료방법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만성 간질환을 肝熱, 勞倦傷, 黃疸, 脇痛, 積聚, 脹, 酒傷이라 하여 여러 간질환의 의미와 부합하거나 증후군내에 포함될 수 있는 증상 위주로 언급되어 왔으며, 현대에 이르러 서양의학적인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만성 간질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험적 연구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인진호탕, 인진오령산, 가감위령탕 등 문헌적 처방을 중심으로 각종 간손상에 대한 한약물의 효과를 생화학적, 면역학적, 조직학적 연구를 통하여 다각도로 관찰하여 왔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많은 환자들에게서 간기능회복과 아울러 유의성있는 HBeAg 음전효과(약 30%)를 볼 수 있었다.

간염에 대한 한방치료는 이미 2천년 전부터 있어왔는데, 최근의 연구를 통해 본원의 간염 치료약인 청간탕이 이담작용과 간세포의 재생능 및 면역증강 효과가 탁월함이 밝혀졌다.

특히 간기능 회복을 통한 면역의 조절과 활성화 목적으로 사용중인 청간탕은 2000년 전부터 황달의 치료에 사용되어온 대표적 처방인 인진오령산을 모태로 현대적 의미로 다시 재구성한 처방으로 치료받은 만성간염 환자들의 많은 예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세포를 청소하는 T림파구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간세포의 재생능을 활성화시키고, 간 안의 미소혈액흐름을 원활케 해주며 섬유화를 촉진하는 TGF와 같은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원의 연구에 의하면 DMN으로 유발시킨 쥐의 간경변 진행을 가미청간탕(加味淸肝湯)이 현저히 억제하였으며 임상에서도 매우 유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야기되는 알코올성 간질환이 만성 간질환으로 이행되는 중요한 원인인 자중의 하나로 만성적인 과음은 체액성 면역능력을 감소시켜 B형 간염 예방접종에 대한 항체형성률을 떨어뜨리고, Cytotoxic T Lymphocyte(CTL: 세포독성 T 임파구)의 활성화도와 T-cell의 증식 그리고 cytokine 분비능력을 감소시켜 세포성 면역능력도 약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만성 음주자는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아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HBsAg의 발현도 동시에 증가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점차 음주연령이 낮아지고 여성의 음주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체구가 작고 체내 지방질이 많으며 알코올의 분해능력이 떨어져서 적은 양의 알코올로도 높은 알코올농도와 빠른 간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알코올성 간질환에 대한 치료는 무엇보다 금주가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본인의 의지와 아울러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금주시 나타나는 금단현상의 완화와 빠른 간세포 손상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약물치료도 또한 요구되어진다. 청간탕은 실험적으로 간세포성장인자인 HGF를 활성화시켜 손상된 간세포의 빠른 회복을 도와주며, 치료시 행해지는 금주침과 부항요법은 음주욕구의 감퇴와 금단현상의 완화를 도와준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한약은 간에 나쁘다'라고 사회전반에 널리 팽배되어진 인식에 대한 이야기다 결론부터 이야기하

면 '한약은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약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에까지 최종적으로는 간에서 해독과정을 거쳐 체외로 배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식단에 올라오는 많은 음식이 실제 한의학에서는 의약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만약 모든 한약이 간에 나쁘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 음식으로 먹고 있는 많은 의약들은 어떻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일전에 모 학회에서 생약제제들의 간독성에 대한 임상보고에서 이중 놀랍게도 가장 많은 간독성을 일으킨 한약제제로 한의학에서 대표적 간치료제로 쓰고 있는 인진쑤를 대표적 사례로 발표하였다. 이는 민간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기에 사용한 케이스가 많을수록 그 부작용사례도 많을 수밖에 없으며, 또 인진쑤는 그 성질이 약간 차기에 간염 병인의 많은 부분을 濕熱로 보고 있는 한의학적 사고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의약인데 반해 찬 성질로 인해 평소 위장이나 장기능이 떨어지고, 아랫배가 차 설사를 하는 사람에는 금기시하는데, 이를 모르고 민간에서 간에 좋다는 얘기만 듣고 전문의와의 상담없이 무조건 장복했을 경우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이 한약에도 분명 간에 이로운 약이 있는 반면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약이 명시되어 있고, 또 그 적응증이 개인마다 틀린데 이를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배타시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수많은 천연자원의 잠재력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아닐지 심히 걱정되는 바이다

많은 실험실의 연구인력들은 이구동성으로 새로운 간장질환 치료제로 생약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수많은 생약제제들에서 실험실적으로도 그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